

**2022년 12월 25일 “(성탄예배) 아래로부터 비추는 영광”(눅 1:35, 2:7)**

예수님은 태어나 누이신 말구유로부터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구유와 십자가는 아래(바닥)라는 공통적 의미를 갖습니다.

**[1] 아래의 의미**

‘아래’란 낮은 계층/자리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사람의 인격과 관계 속에 일어난 혼돈, 어둠, 공허의 상태입니다. 즉, 분리와 소외가 지배하여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이러한 곤경 상태로 들어가셨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직접 만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조 때 바라신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희망은 아래로부터**

우리의 소망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높아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곤경상태인 분리와 소외가 극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어떤 사람들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와 소외 속에 처한 약한자를 품으심으로써 구주와 화목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창조 때 하나님과 인간이 뜻하신 것이며, 예수님은 이 뜻을 알고 순종하셨습니다.

구주의 역사는 사회적 차원뿐 아니라 인간 내면의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내면의 깊은 어둠속에서 내가 소외시켰던 약점/과거의 아픔/수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이것을 모두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또한 나를 품는 화해에 이르게 됩니다.

말구유에서 삶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혼돈, 어둠, 공허의 깊은 곳에서 희망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 희망이 실현되는 화목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예수님이 누이신 말구유, 죽으신 십자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런 삶을 자처하시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까?
2. 나의 내면의 바닥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